결혼식장에서 결정된 홍수심판

(창6:1~8)

1.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3.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4.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5.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8.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결혼식장에서 결정된 홍수심판>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결혼식장에서 결정된 홍수심판’

가장 기쁘다고 하는 곳이 결혼식장 아니겠습니까?

신랑신부 당사자에게는 일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날이고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말하는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결혼식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결심을 하십니다.

‘내가 지은 인간을 이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겠다!’

참 이상해요, 앞에서 가인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가인의 후예인 라멕의 칼의 노래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게 조그마한 상처를 내는 사람이 있으면 가만 두지 않고, 같은 정도로 되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여 버리겠다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내 것이 생겼어요, 내가 마음으로 좋아하는 것들이 생기니까 그것들을 지키고 발전시키고 더 크게 확장시키고 성취하기 위해서 제일 큰 방해가 되는 존재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죽이면서 살겠다는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이 얼마든지 예상이 되는, 악하고 못돼먹은 그런 상태에서 인간을 쓸어버리겠다는 홍수심판을 결정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식장에서 결정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나라도 2000년도에 들어와서 이혼율이 매년 36%에서 47%까지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한답니다. 47%는 거의 50% 아닙니까?
2002년의 경우 하루 평균 840쌍이 결혼을 하는데, 하루 평균 398, 거의 400이죠, 400쌍이 이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율이 47.7%였다고 합니다.
와~! 어마어마한 숫자에요. 이때 전 세계에서 3위였습니다. 미국이 51% 스웨덴이 48%.
노르웨이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런 나라들보다 더 앞섰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혼이 많은데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결혼의 문제가 돼서 치명적으로 나쁜 영향이 미쳐지는 이유는 결혼이라는 게 인간관계의 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기초입니다, 사회 구성의 근거입니다, 나라의 기반입니다.
현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느끼겠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는 홍수심판을 결정하신 현장이 결혼식장이었다는 거예요.

그 결혼식장은 어떤 결혼식장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함은 천상에 있는 무슨 천사 같은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셋, 아벨이 죽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아들을 주셨는데 그 셋의 아들 중에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래서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셋의 계열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인간의 자아의식, 타락 이후의 상태를 타락한 것으로 인정하고 여호와하나님을 부르며 여호와하나님이 없으면 나의 삶은 곧 죽음이요, 병듦이요 부패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의 계열이 있었음을 압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들의 존재가 신적 존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이 필요한 것이고 부패 대신 올바름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살았던 이 관계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한 거죠, 하나님께 들어야만 살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합니다.
사람의 아들들이라 함은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그래요.
언뜻 보기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기서 '아름다움을 보고'라는 얘기는 아름다움의 여부를 자기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속으로 잘 판단하고 가늠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서 자기의 기호를 따라서 여자를 선택하고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만 지금은 여자 쪽에서도 선택권이 있어서 쌍방의 선택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이게 뭐 잘못됐습니까?
근데 여기다 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사람들이 도저히 당신의 영이 함께할 수 없는 고깃덩어리들로 바뀌었다고 하십니다.
육신이 되었다고 하는데, 육신이라는 말 자체가 피부에 와 닿지 않아요, 이걸 사실적으로 본문에서 가리키는 바를 그대로 드러내면, 그냥 고깃덩이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장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소고기 70Kg과 돼지고기 50Kg의 말할 줄 아는 고깃덩이들이 결혼하는 것과 같아졌다는 겁니다.
말이 너무 참혹한가요?

근데 이게 본문의 의미 그대로를 사실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말할 수 있는 고깃덩어리 70Kg 짜리와 말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고깃덩어리 50Kg 짜리 둘이서 연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연합해서 3Kg 짜리를 낳아서 기르고 그것이 또 커서 70Kg 짜리가 되면 또 50Kg 짜리 다른 고깃덩이를 만나서 결합하고, 이러한 육신이 돼버린 인간세상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육신이 되었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리고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선택해서 결혼했다는 것,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뭣 때문에 이 아름다움을 보고 선택해서 결혼한 모습을 보시면서 인간을 고깃덩이라고 할 정도로 악하다고 생각하시고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고 생각하셨을까요?
육신이 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아름다움을 본다는 것은 쉽게 요즘으로 말하면, 내 배우자로서 적합한가의 여부를 잘 판단한다는 얘깁니다.
아름다움이 꼭 외적인 미만을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배우자로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는 얘깁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물론 외모가 첫 번째로 들어갈 것이고, 상대자의 학력, 집안, 부모님이 어떤 분이시고, 친정이나 시댁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 다 봅니다.
인물, 직업, 능력, 학벌, 집안, 외모, 이런 걸 다 보는 거죠.
이게 '아름다움을 보고'라는 말에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러면 집안도 안 보고 결혼하나? 학력도 알아야지 학력도 모르고 결혼하나?
그런데 육신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고깃덩어리가 된다는 얘기에요.
뭐가 잘못됐나 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다는 이 말씀에서 답이 나옵니다.
자, 내가 한 여자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외모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귀어봅니다.
집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자가 능력도 있고 학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 얘기도 들어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깃덩어리라는 거예요.
여자의 외모가 눈에 들어와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육체의 눈으로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내 생각이 육체가 본 그 재료 위에 근거돼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렇지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본 재료 위에서 생각하고 판단해가지고 결정해서 배우자로 삼았습니다.
이게 고깃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고깃덩어리라고 하는지 아시겠지요?
육체가 보고 듣고 만지고 육체의 5감각으로 들어온 재료를 근거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혼하니까, 아무리 말하고 생각하는 능력과 이성이 있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있는 자라 할

지라도, 육체에 근거돼서 지정의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고깃덩어리가 됐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영이 함께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신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운행하신다는 말은 암탉이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 품고 있는 형상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영이 함께할 수 없다는 말은 뭐겠어요?
알을 품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알을 품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배우자가 있다는 얘기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concept이 그 알 속에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니 한 여자가 예뻐요, 그러니까 접근해서 사귑니다.
육체의 귀로 듣고 내 속에서 '아, 이런 여자구나' 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선택합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 예쁘고 귀로 들을 때 괜찮다고 여겨지는 어떤 여자나 남자가 있더라도 내 배우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을 품고 계신다는 얘기에요.
그러므로 육체를 통해 보고 들은 이성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면서 대상 중에서 배우자를 고르면 고깃덩어리가 돼버리고,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알 중에서 배우자에 대한 계획의 알이 부화돼서 내게 배우자가 주어질 때, 하나님의 영이 계속 함께할 수 있는 참 결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점점 사회로 확대됩니까?
네피림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네피림, 거인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명한 인간들이고 장부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깁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가서 네피림을 낳는다.
그 당시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 좋다 나쁘다의 판단 기준이 네피림, 골리앗같이 크고 장대함, 완력이 강함, 이게 유명해지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엘리트 그룹을 말하는 거죠, 일류대학 출신 이런 정도라고나 할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자체 내에서 육체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 것들 중에서 무

엇이 좋고 나쁜가의 기준이 생겨나면서 죄가 관영하게 되는데, 결국은 홍수 결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면서 쓸어버릴 것을 결정하십니다.

자,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우리가 무엇을 연상하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악이 노골적으로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현장을 우리는 생각하게 돼요.
강남의 유흥가, 타락한 노래방이나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면서 성매매를 하는 곳, 모텔 등등…
이런 것들이 집결되어있는 유흥가를 연상하게 됩니다.
사람의 이탈행위가 집중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아예 노골적으로 판을 벌려놓은 그런 장소.
그러면 죄악이 관영하다는 것은 요런 장소로 전국이 꽉 메워졌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그런 유흥가에서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죄악이 드러난 현상이라고 생각하셨다면, 가득하다고 하지 않으셨고 죄악이 세상에 얼룩얼룩하다고 그러셨을 겁니다.
여기저기 죄악이 가득한 장소들이 드러난다고 얘기하셨을 거예요.
근데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다는 얘기는 바로 내가 살고 있는 내 아파트 몇 동 몇 호, 내 가정 안에도 죄가 가득하다는 얘기에요.
문밖을 나가면 온 세상이 다 죄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유흥가가 아니라도.
여기서 죄악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라아'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인데, '라아'라는 뜻은 뭐냐 하면 깨뜨리다, 쓸모없게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죄악이라는 것이.

그럼 뭘 깨뜨렸다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계획의 알들을 부화시키려고 끌어안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알들을 깨뜨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온 땅에 가정에도, 직장에도, 누구도 자기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육체를 통해 마음속으로 접하게 된 재료들을 근거로 자기가 판단하고, 네피림으로 대변되고 있는 가치관의 기준을 따라서 내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고, 거기서 액션이 나옵니다.
이게 다 악이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주 큰 사업을 하겠다는 비전을 갖게 되잖아요, 아주 비전을 가지라고 난리 법석이잖아요.
근데 이 비전이 하나님의 영이 품고 계시는 알 속에 들어있는 게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비전

을 따라 움직이는 것 자체가 그 비전을 따라 움직이는 모든 시간동안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었던 모든 알들을 다 깨버리는 것이고, 온 지면에 알이 깨진 것으로 뒤덮여서 죄악이 가득해졌다는 겁니다.
이 죄악은 깨뜨리는 것이고 쓸모없는 것들로 만들어버린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인간 한 인간마다 창조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6일 동안 창조하셔서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모든 걸 만드실 때마다 알을 갖고 계시다가 그 알을 부화시키셔서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신 뒤에 선악과를 만들어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당신이 갖고 계신 개인 개인에 대한 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알들을 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역이 인간과 함께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자기가 이 육체의 눈으로 보고 육체의 귀로 듣고 육체의 손으로 만지는 것들을 재료삼아서 자기 스스로 무엇이 내게 좋은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놓으신 부화되어야 될 모든 계획의 알들이 다 깨뜨려져버리고 쓸모없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뜨려진 흔적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죄악이 관영하다는 얘기에요.
꼭 유흥가 가서 이상한 짓 하지 않아도, 건전하다고 생각하는 가정에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가훈을 만들어놓고 '우리가 이대로 살면 우리 가정이 잘될 거다' 죄악이 가득한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거라 이겁니다.
모범시민 속에서도 건전한 가정 속에서도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알이 부화돼서 삶이 진행되는 게 아니면…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결혼하라고 하고 좋은 여자들을 갖다 대면서 연애를 해보고 맞선도 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결혼을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눈에 보고 귀에 들리는 대로 재료를 받고 그 재료에 근거해서 결혼하셨습니까?
회개하세요!
이혼의 이유는 성격차이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배우자에 대한 계획의 알을 깨뜨린 데에 이혼의 이유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혼을 안 했어도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자식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 결혼 자체에 대한 회개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혼한 상태에서 이혼할 것이 아니라, 결혼한 것이 내 멋대로 한 것임을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결혼을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인정해주시는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남편이 미워지고 아내가 싫어지고 이혼을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헤어질 것인가 어떻게 재산을 분할할 것인가, 이 따위 것 생각하지 말고 먼저 '결혼이라는 시작부터가 잘못됐어, 내가 고깃덩어리인 채로 다른 고깃덩어리를 붙잡았구나!' 이것부터 회개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서 품고계시는 그 계획의 알을 깨뜨려버림으로써 지금 이 가정에 평강이란 게 존재하지 않는구나, 알아차려야 된다는 얘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고깃덩어리로 살겠습니까?
하버드 대학 나온 수재도 고깃덩어리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일부 과학계에서의 석학들이 있어요, 석학 고깃덩어리입니다, 아무것도 못 배운 무학 한 분은 무학 한 고깃덩이고.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게 지금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는 관점이십니다.
그리고 고깃덩어리들의 움직임이 결과로서 지금 빚어지고 있고, 이 결과로서의 악한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이제 육체의 재료를 근거로 그 위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액션을 취하던 고깃덩이로서의 나의 인격 자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인정하면서부터 하나님이 품고계시는 계획의 알들이 부화되는 삶으로 바뀌어야 우리 삶이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니,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니? 땅의 것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데?
그것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본래의 사람인 거예요.
이 자리를 벗어나면 고깃덩어리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회사의 상황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데 이러이러 하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내가 액션을 취한다, 나라의 경제 상황이 어떻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액션을 취한다, 어떤 교회가 부흥했으니까 그 교회의 부흥을 보고 거기 가서 배우고 와서 액션을 취한다, 목회를 해도 고깃덩어리가 됩니다.
100 교회가 똑같은 방법으로 부흥을 이루어도, 내가 고깃덩어리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 목회에 대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의 알들이 부화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재료들을 마음에 담고 액션을 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결정하셨던 이유인, 인간이 고깃덩어리가 됨의 역사가 반복됩니다.
단지 앞으로 보겠습니다마는, 노아와 약속한대로 아직 멸절을 안 시키는 것뿐이지 고깃덩어리 됨은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할 줄 아는 고깃덩어리 됨은 모두 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고깃덩어리로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그 결과, 어떻게 우리가 이 결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십자가로 돌아가서 이제는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만져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 나는 죽고,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떡하십니까? 이 세상을 보시고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고 해요, 그것은 이 세상을 깊이깊이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세상을 care 하신다는 얘기에요.
그러므로 내가 죽고 내 배우자 문제, 내가 이미 하나님 무시하고 결혼한 상태의 가정문제, 이 문제를 전부 이제는 내가 맡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내드리고, 나는 바울이 말한 대로 위에 것만 생각하는 것으로 삶의 틀을 바꿔버리자 이겁니다.

결혼식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쓸어버리겠다는 대홍수 심판을 결정하셨다는 이 사실을 꼭 우리가 그 의미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지렁이 같은 우리가, 뭐가 된 줄로 알고 스스로 이게 좋고 저게 좋다 판단하면서 결혼도 하고, 결혼도 시키고, 자식도 낳고 길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는 내 스스로 육체의 5관을 통해 들어온 재료들에 근거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고깃덩이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